



안혜성

변호사

TEL 02-316-4700
FAX 02-756-6226
E-MAIL hseahn@shinkim.com

안혜성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(유)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주된 업무분야는 M&A, PEF(사모투자펀드) 등 각종 기업거래에 관한 자문 및 기업지배구조조정 업무 등입니다.

안 변호사는 많은 주요 인수합병 거래를 자문해 왔고 그 과정에서 국내 최초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의 거래들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. 또한, 다양한 산업 분야의 국내외 기업 및 펀드를 대리하여 우호적인 기업 인수 및 합병, 합작투자, 벤처캐피탈, 국내자회사 설립에 관한 자문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. 회사 분할이나 합병, 지주회사 설립 등 기업지배구조조정 측면에서도 많은 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.

안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, 동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으며, 또한, 사법연수원을 38기로 수료하였습니다.

안 변호사는 인수합병, 사모투자 분야에서 여러 법률 이슈들에 대한 저술 활동과 다수의 국내외 세미나에서 발표자 또는 토론자로 참가하여 왔으며, IFLR 1000 및 The Legal 500 Asia Pacific 같은 해외 유명 매체로부터 Corporate/M&A 분야 Leading Individual로 인정받고 있습니다.

경력

2009-현재	법무법인(유) 세종
2009	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
2006	제48회 사법시험 합격

주요 업무 실적

- 동원산업의 동부익스프레스 인수

- 동원시스템즈의 아르다 메탈 패키징 아메리칸 사모아 인수
- 동원시스템즈의 테크팩솔루션 인수
- SKC의 인더사업부 분할 후 매각
- SKC의 SK바이오랜드 지분 매각
- SKC 및 코오롱인더스트리의 SKC코오롱PI 지분 매각
- 스톤브릿지캐피탈, 페이레터 컨소시엄의 케이에스넷 인수
- 스톤브릿지캐피탈의 AJ냉장 인수
- 스톤브릿지캐피탈의 유진소닉 투자
- KT의 웹케시 및 그 계열회사 지분투자
- KT의 KT 서브마린 매각
- IMM PE의 콜마파마 주식회사 인수 및 한국콜마 제약사업부문 영업양수
- 한앤컴퍼니PE의 쌍용양회공업 인수 자문
- 해태제과식품의 아이스크림 사업부문 물적분할 후 매각
-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Main Legal Counsel로 예금보험공사 및 매각자문사에 대한 자문(우리금융지주 분할, KNB금융지주와 KJB 금융지주 설립, 광주은행 및 경남은행 매각)
-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국제자산신탁 매각
- SK머티리얼즈의 금호석유화학 포토레지스트 사업양수
- 동부그룹의 동부익스프레스 매각
- 한라홀딩스의 만도헬라 지분 매각
- 미래에셋과 힐라코리아의 미국 골프용품 제조업체인 미국 아큐시네트(Acushnet Company) 인수
- 동양그룹의 동양파워 매각
- 롯데의 Times Co., Ltd. 인수
- 금호그룹의 대한통운 매각
- 롯데의 Buy the way 인수
- 롯데의 CS 유통 인수
- SK 네트워크스의 웅진코웨이 인수 추진
- 한국씨티금융지주와 한국씨티은행 합병
- 미래에셋PE의 커피빈 본사인 미국 International Coffee & Tea 인수 (Advent International, CDIB Capital 공동인수)
- 한국장학재단의 삼성에버랜드 지분 매각
- 동부컨소시엄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
- 미래에셋 PE의 차병원그룹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의 자회사 씨에이치오(CHA Healthcare Operation) 투자
- IMM PE의 대우인터내셔널 보유 교보생명 지분 인수

학력

2002-2007	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(법학사)
1999-2002	신목고등학교

자격

2009	변호사, 대한민국
------	-----------

언어

한국어, 영어

외부 평가

- Chambers Global/Chambers Asia Corporate/M&A 분야 "Leading Individual" 선정 (2025-2026)
- 리걸타임즈 M&A 및 회사법 분야 "라이징스타(Rising Star)" 선정 (2023), "리딩로이어(Leading Lawyer)" 선정 (2024-2025)
- Lexology Index M&A and Governance 분야 "Leading Lawyer" 선정 (2025)